

#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, 한국-캐나다 인공지능 교육 연구 보고서 공개

-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,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와 AI 교육 공동 연구
- 인공지능 기술, 인공지능 윤리의 조화로운 교육 강조

김동호 기자 2022-01-17 15:20:43 사회이슈

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(AI)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.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진흥하고 있지만, 정작 인공지능 전문가의 부족은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, 학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AI 교육에 관한 정보와 연구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진행이 미흡한 실정이다.



▶ 한국-캐나다 인공지능 교육 연구보고서 표지, 제공=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

이에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(KAIEA, 이사장 전창배)는 캐나다의 국책 연구기관인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 (APFC,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),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'한국-캐나다 인공지능 교육 연구 보고서'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.

이 보고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공교육 및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현황과 특징을 연구하고 약점, 강점, 위협, 기회의 SWOT 분석을 통해 각 국의 AI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전망과 시사점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.

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 교육은 한국, 캐나다 모두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,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교육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반면, 캐나다는 각 주의 자체 부서와 시민 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었다.

또한 보고서는 3가지 사항을 각 국 정부와 교육 관련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, ▲각 국 정부는 유치종교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,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, ▲AI 교육에 있어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만 정부는 AI 교육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, ▲AI 교육 중 '인공지능 윤리'는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.

이번 연구에 대해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은 "인공지능 교육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. 한국, 캐나다 AI 교육 연구를 통해 양 국가간 AI 교육에 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"며, "하지만 아직 AI 시대 초창기인만큼 정부와 학계, 시민사회가 AI 교육에 관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은 1984년 캐나다와 아시아-태평양 지역과의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싱크탱크이며,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는 AI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인문학 기반의 학문적,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.

<저작권자 © 서울경제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